

‘파격 변신’ 올해 전주소리축제 기대된다

10월8일부터 5일간... 경기전 초대형 특설무대 첫 공연 공연 수 줄이고 수준 높여 판소리 진수 보여주기로 소리 프론티어 심사 강화해 ‘글로벌 국악스타’ 발굴

“2014 전주 세계 소리축제”가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진화한다. 소리축제 조직위원회는 11일 올해 축제의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다섯달간 열리는 축제의 ‘예고편’을 알렸다.

특히 올해는 박재천 신인 집행위원장이 기획한 첫 번째 축제로, 달라진 모습에 대한 관객들의 기대가 크다.

◇공연 횟수 줄이고 질 높여=이번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지난해보다 공연 횟수가 대폭 줄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소리축제에서는 세계 36개국의 아티스트가 참여해 48개 프로그램에서 270여회의 공연

이 무대에 올랐다. 올해는 공연이 약 30%가 줄어 28개국 6개 분야 200여회가 무대에 오른다.

조직위는 올해 주제도 ‘대마디 대장단’ (가제)이라고 정했다. 대마디 대장단은 판소리에서 기교를 부리지 않고 본래의 리듬 형태를 이르는 말로, 소리꾼의 최고 기량을 가능케 하는 판소리의 진수를 말한다.

박 집행위원장은 “양이 줄었다고 해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을 선정하는데 정제과정을 강화했다고 생각하면 좋겠다”며 “양을 줄인 만큼 원형은 원형답게 보존하고, 실험은 파격적으로 해서 공연의

질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경기전 특설무대 첫 시도=소리축제의 새로운 ‘랜드 마크’로 전주 경기전 특설무대가 뜨고 있다.

이 초대형 특설무대에서는 다양한 국악과 장르의 예술가들이 릴레이 방식으로 공연을 선보인다. 특히 특설무대 공연은 수준 높은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무대 장치와 음악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11개국의 전통악기가 한 무대에 오르는 국립극장 프로그램 ‘문화 동반자’를 비롯해 서아프리카 그리오 가문에게만 전수되는 악기 ‘코라’의 연주 등을 들을 수 있다.

또 ‘소나 자바테’ 등 특설무대에서는 개막일인 10월 8일을 제외하고 폐막일인 12일까지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화려한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경기전과 함께 한국소리 문화의전당 놀

이마당에 세워진 ‘야외공연 무대’도 아마추어 무대를 줄이고 수준 높은 공연을 늘렸다.

◇소리 프론티어 심사 강화=국악의 세계화에 이바지할 재목을 발굴하는 ‘소리 프론티어’ 프로그램도 엄정한 심사 과정을 통해 선발한다.

소리 프론티어 심사위원단은 기존 4명에서 15명으로 수를 대폭 늘렸고, 심사 항목 역시 음악은 물론 스타일, 스타성까지 영역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축제 시작 전에 예선을 거쳐 축제기간에 본선을 치르는 방식을 도입해 공연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조직위는 전통음악에서 출발해 세계인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을 ‘글로벌 스탠더드’를 얼마나 구현해내는가를 이번 변화의 핵심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전남 소식

나주시-지역 국회의원 정책 간담회

호남고속철 경유·예산 논의

나주시는 지역 현안사업의 해결과 2015년 국비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최근 시장 이화실에서 7-30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과 홍철식 시의회 의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과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강 시장은 ▲축산 악취로 공동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에 악점이 되고 있는 ‘호혜원’문제 ▲호남고속철 2단계 구간에 나주역 경유 노선 확정 ▲친환경 식품소재 산업화센터 건립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 지원센터 건립 등을 설명하고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강 시장은 “시는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단계별 추진계획을 면밀히 세워 해당부처를 문턱이 닳도록 방문하는 등 국비확보 노력을 기울여겠다”고 말했다.

홍철식 시의회 의장은 “국회의원과 집행부, 시의회가 함께 하며 나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생산적인 간담회가 자주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정훈 국회의원은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앞두고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 파악을 위한 유익한 자리가 됐다”며 “호혜원 문제 해결과 호남고속철 나주역 경유 등의 주요 현안은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노력과 국회 의정활동이 맞물려야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긴밀한 소통을 주문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무안시 승격은 선택이 아닌 필수”

승격 추진위 결의대회 개최

무안시 승격 추진위원회(위원장 박일상)는 지난 8일 일요일 회산백련지에서 무안시 승격 추진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안시 승격을 위한 군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무안시 승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무안시 승격운동에 무안시 승격 추진위원회가 적극 앞장설 것을 결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무안군의 경우 현재 삼향읍의 인구가 3만4000여 명으로 연평균 8.4%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지금과 같은 인구증가 추세라면 오는 2019년에는 시 승격의 범

적 요건인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으로 조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일상 위원장은 “무안군은 도내 17개군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고 올해 3월에는 인구 8만명을 돌파했다”며 “전남 도정 이전과 남약 신도시 및 오룡지구 개발 등 자체 성장동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남도청 소재지로서의 역할과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무안시 승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역설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세종시와 계룡시처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시 승격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민원 수수료 신용카드로 납부하세요

전남도가 최근 도민의 납부 편의를 위해 각종 민원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연내에 22개 시·군 민원실에서도 카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민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는 그동안 민원 수수료 대부분이 소액이라는 사유로 현금 납부만 가능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카드 납부가 가능한

민원 수수료는 도 분청에서 처리하는 모든 부서의 각종 인·허가 등록(신고) 수수료를 비롯한 자격증 교부 등 모든 증명 수수료로, 1000원 미만의 소액도 신용카드 결제할 수 있다.

최희우 전남도 종합민원실장은 “늦게나마 현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울현식기자 chadol@



전국 95개 대학 학생들이 직접 설계해 만든 자동차로 12~14일 군산에서 경주를 벌인다. 지난 대회 오프로드 경기 모습.

군산서 국내 최대 규모 ‘대학생 자작 자동차대회’

12~14일 새만금자동차경주장 오프로드 등 5개 부문 164팀 참가

군산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생 자작(自作)자동차 대회가 열린다.

군산시의 한국자동차공학회(회장 박병완)는 12일부터 14일까지 새만금 군산 자동차경주장에서 ‘2014 대학생 자작자동차 대회’(Baja SAE Korea)를 연다.

이번 대회는 대학생들이 주행이 가능한

차량을 직접 설계, 제작해 자동차 경주에 우승팀을 가린다. 8번째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역대 대회 중 가장 많은 팀인 전국 95개 대학 164개 팀이 참가 신청을 해 국내 최대 규모의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는 ▲오프로드(Off-Road) 경기인 ‘BAJA 부문’ ▲미니 F1 머신이라고 볼 수 있는 온로드(On-Road) 경기인 ‘포뮬러(Formula) 부문’ ▲신선한 아이디어와 독특한 디자인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 부문’ ▲최고의 연비 효율을 가리는 ‘연비

대회’ ▲친환경·효율을 전기자동차 EV 부문(시범경기)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열린다.

총 4000만원 상당의 상금과 경품이 참가팀에 제공되며, 대회 우승팀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한편 미국(SAE International)을 비롯한 일본(JSAE), 영국(IMechE), 독일(VDI-FVT), 호주(SAE-A), 태국(TSAE) 등 세계 각국의 자동차공학회가 비슷한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남원 황진 장군 고문서 보관실 추진

교지 등 체계적 관리

임진왜란 때 왜구를 크게 무찌르고 진주성에서 장렬하게 순절한 무민공 황진(1550~1593)장군을 기리는 고문서 자료 보관시설이 남원에 건립된다.

남원시는 11일 황 장군의 영령이 모셔진 대산면 대곡리에서 이환주 시장, 강용구 도의원, 후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황진가(黃進家) 고문서 자료보관실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942호로 지정된 황진가 고문서는 황진 장군의 급제와 왜구를 무찌른 공적을 기리는 교지, 재산 분제기, 후손에 대한 내용 등 다양해 조선시대 중기 생활상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황 장군은 1550년 남원시 주생면에서 태어나 무과 급제 이후 동북첨감과 충청도 병마절도사를 지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충남 금산군 이치에서 왜구를 대파하는 큰 공적을 세웠으며 1593년 진주성에서 순절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4성급★ 호텔건물매매

- 현재 노인요양시설 허가 취득
- 엘리베이터 설치 및 리모델링공사 완료
- 목포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위치
- 4성급호텔, 노인병원 등 즉시 사업가능 (커미션은 휴업중)
- 주차장 및 부속상가 건물 3동

한국건설원 감정가 보다 20% 감액 매매 예정
· 매매가격 상당 후 결정
· 현장 답사 요망

목포시 대의동 2가 1-9번지의 3필지(지상 9층 지하 1층)
토지면적 3,478㎡(1,054평)/건축면적 7,091㎡(2,149평)

연락처 010-9823-7781, 010-9696-8701

NAVER 부동산

단비플라워

축하와환3단 근조와환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아주 싼 녹지지역

전원주택 및 사찰 부지 최적!
동일 조건에서 더 싼 땅은 없습니다.

- 지역 : 보전녹지지역
- 지목 : 전
- 면적 : 3,716㎡
- 매가 : 3.3㎡당 35만

투자유망

무안군 운남면 내리 하트인 해변가 전원주택지 적합

- 지역 : 계획관리지역
- 지목 : 전 및 대지
- 면적 : 13,939㎡
- 매가 : 13,939㎡

최고의 전원주택지

서구 세하동 최고 요지
정남향 앞도로 접, 조망권 최고 !!

- 지역 : 1종 주거지역
- 지목 : 전
- 면적 : 1917㎡
- 매가 : 3.3㎡당 120만

행운(구 대창)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송창석
011-642-7777

收益 33.3% 호텔 “급매매”

대지 6,600㎡, 건평 2,192㎡
객실 48개, 지하수, 심야전기

2013년 리모델링 완료

최고급 럭셔리 호텔급 시설
지역 독점상권, 접근성 최고

- 월매출 8천만원 / 지출 3천만원
- 매출 장부확인 및 계약부조건 가능
- 3년 운영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

- 매가 33억 (용자 15억), 현금 18억
- 가격 절충 불가, 실수요자만 문의 바람

신세계공인중개사사무소
문의전화 010,5188,5515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500만원정도
토지 가격 만도
7억5천만원정도

매매가격
8억8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